

전화 한 통화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이상열 센터장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산업재해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삶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켰듯이 향후 예측하기 힘든 환경 변화가 일어나도 산업재해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예방 활동이 필요한데, 정부가 바뀌어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노동자 개인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인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주로 추락, 끼임에 의해 발생하지만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에는 보통 21%정도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마심으로써, 뇌에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의식을 잃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질식사고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농도가 약 18% 미만이 되면 산소결핍증이 나타나는데, 농도가 10%이하면 의식이 비정상적이고 8%이하면 7~8분 내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과 장마로 인해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물체의 부식이나 미생물 증가에 따라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질식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서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다. 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 하는데, 밀폐공간이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한다. 지하에 설치된 맨홀이나 피트 내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및 분뇨, 오·폐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집수조 등이 대표적이다.

질식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높은 치사율 때문인데, 질식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무려 44%에 이른다. 질식사고 재해자 2명 중 1명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치사율이 약 1.2%인 것을 감안하면, 질식사고 치사율이 40배나 높아 굉장히 치명적이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밀폐공간에는 작업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❶작업 전·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❷중단 없이 지속적인 환기 실시, ❸안전한 작업방법 숙지, ❹응급상황 발생 시 동료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한 보호장구(호흡용 보호구, 구명밧줄 등)를 비치해야 한다. 이 모든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비, 인력이 부족해 질식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밀폐공간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작업 전에 공단에 한 통의 전화(1644-8595)를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작업장소로 민간 전문가가 방문해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송기마스크, 환기팬 등 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질식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 뿐만 아니라 내 동료에게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